

경제

지난해 中企 신용보증액 3조 ... 전국 최저 호남지역 어음부도율 1위 불렀다

전체 금액 38조원중 ... 수도권의 14% 그쳐

어음부도율 0.38% ... 서울보다 19배나 높아

■ 2009 中企 신용보증실적

Table with 5 columns: 지역, 보증액, 어음 평균 지원액, and 2010년 8월 현재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data.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사

호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실적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결산심사 자료 '2009년 지역별 신용보증자금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용보증 지원액 38조59462억원 가운데 호남의 보증지원액은 3조4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보증지원액의 7.8%에 해당하며 수도권(21조8962억원) 지원액 대비 13.9%, 영남(9조5832억원)의 31.8% 수준의 금액이다.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도 호남권은 1억1230만원으로, 수도권 1억5066만원, 영남 1억3783만원, 충청 1억3772만원에 못미쳤다.

특히 올 8월까지 지원실적도 수도권 15조5856억원, 영남 6조7931억원, 충청 2조2605억원인 반면, 호남은 2조618억원으로 저조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광주지역 어음부도율이 0.38%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0.02%)의 19배, 지방평균(0.13%)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김 의원은 "보증금액의 지역편중

이 심화된 탓에 광주 지역 중소기업에 30% 이상이 집중돼 있는 하남산단 입주업체 930여개 가운데 12개 업체가 지난해 상반기 부도 처리됐다"며 "신용보증의 지역차별을 없애고 업체당 평균지원금액에 대한 지역별 안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40억원대 경주용 자동차

LG전자는 6일 자사가 후원하는 F1 레이싱 팀인 '레드불 레이싱(Red Bull Racing)'의 40억원대 경주용 자동차를 서울 LG트윈타워에 전시했다. 이 회사는 7일까지 일반인들 대상으로 포토 이벤트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광주 금형·프레스 가공업체 디케이산업 '국가생산성 대상'

광주지역 금형·프레스 가공업체 디케이산업(대표이사 김보근)이 국가생산성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4회째를 맞는 국가생산성 대상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주관해 매년 전국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개선활동이 뛰어난 기업·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디케이산업은 중소기업 리더십부문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디케이산업은 불합리한 현장업무 개선과 조장·반장을 중심으로 한 인간존중 문화 조성, 연 매출액의 5% 이상 연구개발비 투자 등 꾸준한 전

개한 경영혁신활동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활동으로 이 회사는 벤처기업·이노비즈 기업·경영혁신형기업 인증을 받았다.

디케이산업 웹팀은 이번 국가생산성 산업 권위인 경진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받았다.

이밖에 금호리조트(대표이사 한이수)는 대기업 리더십 부문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금호산업 고속사업부 유체철 승무사원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상을 수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포스코, 협력기업 지원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

포스코는 6일 중소 협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를 신설,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는 포스코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할 경우 선급금과 잔금만 지급하던 관행을 바꿔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도금은 설비 구매금액의 30%로,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및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계약 건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되며, 납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공급사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다. 이에 따라 포스코 협력업체는 선급금(20%), 중도금(30%), 잔금(50%)을 단계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포스코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협력업체들에게 모두 2200억원이 선지급 된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기업 체불임금 급증

8월말 2240개 사업장 580억원 ... 작년보다 155% '깡충'

광주·전남지역의 체불임금이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광주노동청에 신고된 광주·전남지역 체불임금은 2240개 사업장, 580억원(7191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63개 사업장, 227억원(6600명)보다 사업장

은 15.8%(423개) 감소했지만 체불금액은 155%(353억원) 급증했다. 2008년 같은 기간에는 2204개 사업장, 177억(5473명)으로 해가 갈수록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임금의 급증은 올해 초 남양건설, 금광기업 등 광주·전남지역 대표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

어가는 등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청은 이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 479억원(5258명)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한 813건(80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 처리했다.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623명에게는 체당금 32억원을 지급했고, 899명에게는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광주노동청은 추석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광주노동청은 임금 체불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이나 업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노무청에 따르면 사업주에 대한 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최대 1560만원까지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나는 부채 기는 소득'

가계 빛 증가 속도 소득 앞질러... 불균형 심화

우리 국민의 빚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득의 고소득층 편중도 더 심해져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은 저소득층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 711조6000억원은 직전 1년간 총처분가능소득(GNDI) 1117조1000억원의 약 64%를 차지했다. 이는 2003년 상반기 말의 54%와 비교하면 10%포인트 높다.

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 잔액은 매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 추이



2004년 55%, 2005년 56%, 2006년 59%, 2007년 60%, 2008년 61%,

2009년 64% 등으로 계속 커졌다.

더구나 국민 전체의 처분가능소득보다 가계 대출금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소득 증가분이 고소득층에 몰리는 현상이 심해져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전국 2인 이상 비부가가치를 기준으로 2003년 0.277에서 지난해 0.293으로 커져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8월 광양항 물동량 19만TEU 사상최대

지난 8월 광양항 물동량 처리 실적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5월에 최고 기록을 경신한 지 석달 만이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8월 광양항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전월보다 6.6% 증가한 19만TEU(같이 20피트 짜리 컨테이너)로 집계됐다. 이는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5월 18만4000TEU보다 6000TEU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5만5000TEU)보다는 22.6% 증가했다.

이 중 수입물량은 7만9000TEU, 수출 7만5000TEU, 환적 3만4000TEU다.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월간 물동량도 17만TEU를 웃돌았다.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물동량은 138만8000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114만9000TEU)보다 20.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관산업 호조로 수출입 물동량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Market indicators table: 코스피지수 1,792.42 (+12.40), 코스닥지수 482.82 (+4.52), 금리(국고채 3년) 3.69% (+0.04), 원·달러 환율 1,171.20원 (-3.90)

Large advertisement for 'Job & Business' (개업·성업) featuring various business listing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different services like real estate, education, and retail.